

외신 동향

◇ Middle Class Economics, Economist('15.1.24)

*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서, 2016년 대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 시도

□ 미 대통령 연두교서는 **일정한 rule을 가진 의례적인** 면이 강하며, 금번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도 예외가 아니었음

* 여당은 환호하는데 반해 야당은 냉랭하며, 대통령은 야당의 협력 없이는 그 자신의 아젠다를 결코 실행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아니함

□ 금번 오바마 대통령 연설은 **지나치게 낙관적**이었음

○ 금융위기 극복, 고용 증가, 재정적자 감소 및 대학 졸업률 향상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**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 왔다고 평가**

○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**근로계층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** 돕자는 중산층 경제(Middle-Class-Economics)를 주창

□ 그러나,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냉랭한 얼굴을 하면서 **야당의 협조 없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**는 사실을 상기시킴

○ 오바마 대통령의 조세개혁안 등 제안들은 **입법화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임**

* 예를 들어 최상위 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 증세, 대형은행에 대한 부과금 증가 등 증세안에 대해 공화당은 투자저하 및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

□ 금번 연두교서는 기껏해야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2년의 임기동안의 **의지표명 및 '16년 대선에 영향력을 주려는** 시도로 평가됨

* 금번 연두교서의 TV방송 시청자 수는 3천3백만명으로 최근 최저치였으며, YouTube 등 인터넷 매체에서도 그다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함

※ **국내언론의 긍정적 보도**(1.26, 조선일보, “반대자들까지 설득해 기립박수 받은 오바마의 연설 60분”)와는 달리 **Economist지는 평가절하**